

[기획] >> 3면
학생자치회비 감사체계

[기획] >> 5면
서울캠퍼스 제57대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사회] >> 7면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싼 인권 문제

[인물] >> 12면
구재홍 프로젝트 오너를 만나다

서울 캠퍼스

서양어대학

영어대학

경영대학

경상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국제지역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국제학부

LD학부

LT학부

융합인재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동유럽대학

우리학교 신설학과 논의, 그 밑그림을 살펴보다

지난 3월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준치 진행 과정에서 우리학교 본부와 학생 간에 큰 갈등이 빚어졌다. 이어 지난 10월 신설학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과 신설 계획과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4면에서 계속
글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우리학교,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해

지난달 22일 우리학교는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및 메드비지 이스트반(Medvigy István) 주한 리스트헝가리문화원 원장과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글캠에서 우리나라 첫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도입△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운영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유치에 관한 행정적 협력△업무협약 기관 주관 시험의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 상호 교류 및 지원△우리나라와 헝가리 간 문화적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에서 협업을 계획한다. 한편 우리학교 헝가리어과 학과장은 “이번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의 국내 유치는 헝가리어 전문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시험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특수외국어 10개 중 △이탈리아어△튀르키예어△포르투갈어 3개 국의 국제 인증 언어능력시험만이 도입됐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응시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국제 인증 언어능력시험은 총 4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2 글로벌기업 메타버스 커넥트’ 박람회 행사 개최해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 까지 총 5일 간 ‘2022 글로벌기업 메타버스 커넥트’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식회사 커리어△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박람회는 국제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려 외국계 및 해외진출 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 △경제△문화△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열어 온·오프라인 동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기업별 부스에서 △기업 채용 상담△기업 홍보△채용 설명회를 진행했고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에게는 온라인 면접의 기회가 부여됐다. 이외에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상담 및 접수△외국계 기업 현직자 특강△취업 정책 홍보△해외 취업 설명회 및 상담 등이 진행됐다. 김민정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외국계 및 해외진출 기

업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들도 세계화에 특화된 인재를 만나는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국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외국계 및 해외진출 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별 밀착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연(일본·일언문 21) 씨는 “앞으로도 우리학교에서 이번 행사와 같이 취업과 연계된 박람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약 7년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원 기반 시설 구축△진로취업 교육 강화△전문 통합 상담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신입사원 모집

세계 30여 곳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 “케이지엘(주)” 와 함께 성장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주요업무	우대사항	공통사항
항공사업팀	항공사 부킹, BL 발급 운송/통관 대행 및 정산	모집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1) 관련 학과 전공자 2) 외국어 가능자 - 영어 - 스페인어 - 인도어 - 슬로바키아어 - 포르투갈어 - 아랍어 3)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자 4) 주재원 근무 가능자
해상사업팀	선사 부킹, BL 발급 운송/통관 대행 및 정산		
국제 Project 화물 사업팀	해외 프로젝트 화물 중량을 운송 기획 운송업무 등		
IT팀	프로그램 개발 · 유지보수	프로그램 언어 가능자 - .NET, Python, Java, Oracle	
경영관리팀	인사, 총무, 회계, 자금, 기획	모집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학생자치회비 감사체계, 정확하고 공정한 자치회비 운영을 위해선

우리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주도 하에 △총학생회△단과대학△학과를 대상으로 재정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해 감사 심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자료 양식의 상이함△낮은 처벌 수준△학과 내 자율적인 감사 운영 체제△불분명한 세칙 등의 원인

으로 중앙 감사 세칙을 위반한 학과가 다수 나타났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등에서 해당 사태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재정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우리학교 감사 체계 과정과 현황△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의 재정 감사 실시 결과

이번 해 우리학교 양캠프 중감위가 각 캠퍼스별로 진행한 교내 정기 재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학과가 중앙감사 세칙을 위반해 징계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에서 이번 2학기에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통상학과△노어과△독일어과△영미문학문화학과△이탈리아어과△ECC학과 총 6개 학과가 징계 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중감위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는 감사 수칙에 위반된 경우가 없었으나 지난 1학기 교내 재정 감사 결과 △국제금융학과△산업경영공학과△생명공학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아프리카학부△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체코슬로바키아어과 등 14개의 학과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듯 여러 학과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에타에선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재정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우리학교 중감위는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 중 2인이 각각 중앙감사위원장과 부중앙감사위원장을 맡고 각 단과대학에서 감사위원을 1인씩 파견해 구성된다. 감사회의는 재정·감사운영세칙 제37조에 따라 △증빙자료 완비 여부 확인△결산·영수증·통장사본 비교△재원의 목적성·적정성 확인△피감사단위 자료 검증에 관련된 중앙감사위원의 서명△논의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칙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크게 △시정명령△주의△경고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정명령은 단순 오탈자 등 가벼운 사항일 때 중감위가 지정한 일자까지 감사자료를 수정하는 것이다. 주의와 경고는 시정명령보다 무거운 처벌로 각 단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중감위 SNS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경고가 3회 쌓이면 자치회비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우리학교 설캠프 중감위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동아리연합회△총학생회△특별기구까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데 반해 글캠프는 학과 학생회까지 글캠프 중감위의 감사 범위에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세칙 위반 원인과 문제점

우리학교 중감위에서 실시한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학과들의 주된 세칙 위반 원인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 양식의 상이함△낮은 처벌 수준△학과 내 자율적인 감사 운영 체제△불분명한 세칙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의 경우 이번 해 하반기에 현 중감위장과 재정국장 간에 감사를 진행할 때 사용된 양식이 달라 세칙에 게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학생회장 김우진(서양어·스칸어 21) 씨는 “감사위원장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해당 학기 감사위원장의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했지만 이전 감사위원장의 기준으로 감사를 준비해 주의 3회와 시정명령 3회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 결과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적발될 시 각 단위에게 행해지는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해에 이렇게 많은 징계가 발생한 것이 재정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중앙감사에서의 처벌의 수위 단계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 재정 관리 체계의 낮은 처벌 수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들에게 징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또한 과 학생회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세칙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한(아시아·인도어 21) 설캠프 중감위 위원장에 따르면 “감사를 진행할 때 세칙이 불분명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과거 감사 사례와 감사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기에 감사 진행에 있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세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안건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생회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분명한 세칙으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타 학교에서는 재정 감사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관련해 우리 학교와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시행세칙에는 △경고△시정명령△주의 총 세 단계의 징계가 있는 우리학교와 달리 △권고△변상 책임의 판정 △시정 요구△징계 요구 등 여러 세부 단계가 존재하며 처벌의 수위도 다양하다. 카이스트에선 학과 별 증빙서류의 미제출 건수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며 이 점수에 따라 징계 내용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우리학교 학과 재무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의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학교 총장 직속 기관 감사위원회는 세칙이 미비한 점에 대해 “학생 운영 중감위의 세칙은 총장 직속 감사위원회의 학칙과는 다르다”며 “세칙에 대한 보완점은 학칙을 반영해 보완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민희(경영·경영 21) 씨는 “우리학교 재정 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우리학교 모든 학과에서 재정 문제에 대해 더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과 내 동아리 및 학회의 감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글캠프 인도학과에서는 학과 동

아리와 학회 재정 내역을 인도학과 학생회의 재정 감사 내역으로 귀속시켜 중감위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자체적인 감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학교 학우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 세칙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명시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 재정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이다.

2. 주요 감사 일정		
일정	일시	장소
제정협의회	10 월 14 일 (금) 19:20	총학생회실 대회의실&Webex 공간
감사 자료 제출 마감	10 월 28 일 (금) 20:00	총학생회실 대회의실
1 차 회의 ~ 12 차 회의	11 월 02 일 (수) ~ 12 월 09 일 (금)	총학생회실 대회의실
학부·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12 월 06 일 (화) 20:00	총학생회실 대회의실
학부·과 감사보고서 검토	12 월 07 일 (수) , 12 월 09 일 (금)	총학생회실 대회의실
감사결과 보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추후 공지

*회의 장소, 일정 및 시간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각 회의별 피감사단위		
- 1 차~7 차: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영어대학, 중국학대학, 일본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LD 학부, LT 학부, KFL 학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교직원집위원회		
- 8 차~10 차: 학생복지위원회, 문예갈대협의회, 도서관학생위원회, 생활자치도서관, 영상사업단		
- 11 차~12 차: 각 단과대학 감사위원회의 학부·과 감사보고서 검토		
4. 기타 관련 정보		
- 문의: 중앙감사위원장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21') 정한 (010-2682-9122)		
부중앙감사위원장 경영대학 경영학전공(21') 송재은 (010-5171-0812)		
- 공식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ufsinspection		
- 공식 인스타그램: @hufs_inspection		

제 56 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

▲우리학교 설캠프 감사 일정 (출처: 우리학교 설캠프 중앙감사위원회)

학과 동아리 및 학회는 감사 체제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학과 동아리와 학회의 경우 중감위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학과 학생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긴다. 감사 체제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노어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포르투갈어과 등 설캠프에 약 8개 학과·부와 글캠프의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학과 △아프리카학부△한국학과 등 일부 학과는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학과 별로 상이하게 이뤄졌다. 이처럼 학과 학생회의 자율적인 감사로 인해 학과 내 동아리 및 학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태다. 동아리나 학회가 재정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우리학교 신설학과 논의, 그 밑그림을 살펴보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이하 폐과존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었다. 학교와 학생 간의 팽팽한 대립 끝에 최종 학칙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 및 세부 논의들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지난 10월 신설학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학교의 폐과존치 과정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신설학과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폐과존치 결정, 그 이후

지난 3월 우리학교는 폐과존치에 대한 결정을 공식화했다. 학생 사회는 총장과의 대화를 비롯한 학교 측과의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 5월 4일 학생 측의 반대에도 학칙 개정안은 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폐과존치 결정에 따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통번역대학 소속의 △영어통번역학부△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태국어통번역학과 총 4개 학과와 국제지역대학 소속인 △러시아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프랑스학과 총 4개 학과가 폐과존치 대상이 됐다. 또한 폐과존치를 통해 생겨난 입학 정원 291명 중 170명을 활용해 자유전공학부인 ‘글로벌자유전공학부(인문)’와 ‘글로벌자유전공학부(자연)’를 신설해 이번 해 입시기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와 자연계열 모두 지원가능한 학과로 문이과 통합 과정의 취지에 맞춰 필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문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때 인공지능(AI)관련 기초과목과 코딩을 학습하고 자연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때 회화와 글쓰기 수업을 수강한다. 2학년부터는 계열에 관계없이 글캠 내 학과 중 주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학칙 개정안은 양캠프 학생 간의 갈등을 촉발했다. 또한 학칙 개정 최종안에 상위 학과로의 제1전공 전환 조항은 파기됐으나 중복학과의 재적생이 0명이 되는 시점 이후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졸업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학생 측의 반발은 계속됐다. 안전이 통과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 폐과존치와 관련 방안에 대한 학생 사회의 표면적인 움직임은 잠잠해진 상태다. 학생사회 내에서 계속되던 문제 제기 또한 현저히 줄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감소했다. 이에 신설되는 학과에 대한 논의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지난 학기에는 폐과존치를 비롯해 여러 학과들에 대한 학생들의 언급이 끊이지 않았지만 최종 학칙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논의 현장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과 신설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지난달 우리학교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캠퍼스 신설학과 교수공청회’를 진행했다. 학교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글캠의 학과 신설을 위해 첨단분야 학과와 문화산업분야 학과로 구분된 학과신설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학과신설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기업체 관계자와 입시 전문가 접촉을 통한 의견청취△정책보고서 등 문헌 자료조사의 과정을 통해 학과 신설안을 도출했다. 우리학교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여러 학문 분야 중 학과 신설의 기본 방향인 △경쟁환경에 대한 고려△외부환경 변화와의 부합성△우리학교 인프라와의 정합성 3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신설학과 후보의 방향성이 거론됐다. 학교 측이 계획한 신설학과의 주된 방향성은 크게 문화산업분야와 첨단분야로 나뉜다.

문화산업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규모가 확장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각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다양한 외국어 및 지역학 등의 교육 지원기반체계를 갖춘 우리학교와의 높은 정합성이 주요인으로 설명됐다. 첨단분야의 경우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정부 정책과의 적합성과 기존 공과계열 학과와의 높은 연계가능성이 긍정적인 지점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신설학과 가안에는 문화산업분야의 △글로벌 문화산업융합대학 소속 Culture & Technology 학부와 Hotel & Tourism 학부가 소개됐고 첨단분야의 △공과대학 소속 반도체전공과 AI전공△경상대학 소속 핀테크전공과 ESG금융전공△에너지융합전공이 가능한 방안으로 소개됐다. 그중 문화산업분야의 글로벌 문화산업융합대학은 단과대학 규모의 신설을 다루고 있고 첨단 분야의 에너지융합전공은 독립학부로서 학부 규모의 신설을 다뤄 기존 단과대학에 새로운 학부가 추가되는 다른 대안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전공 및 학과 여부△정원 규모 등 신설학과와 관련된 대다수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비롯한 안전 보완 절차 이후에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폐과존치로 인해 나타난 공백을 신설학과 인원으로 보완하는 의견엔 여전히 많은 학교 구성원이 우려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학교 측의 신설학과 관련 논의 또는 움직임을 학내 구성원 대다수가 인지하기 어렵고 신설학과와 관련한 대다수의 부분이 미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학교 교수 B 씨는 “학과를 신설하더라도 소수의 학과만을 우선 신설해 집중 투자를 진행한 후 장기적으로 신설학과를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학교 신설학과 가안	
문화산업분야	△글로벌 문화산업융합대학 소속 Culture & Technology 학부 -콘텐츠 디자인 트랙 -콘텐츠 비즈니스 트랙 △글로벌 문화산업융합대학 소속 Hotel & Tourism 학부 -호텔경영 MICE 트랙 -글로벌 투어리즘 트랙 -웰니스산업 트랙
첨단분야	△경상대학 소속 핀테크전공 △경상대학 소속 ESG금융전공 △공과대학 소속 반도체전공 △공과대학 소속 AI전공 △독립학부 에너지융합전공

▲우리학교 신설학과 가안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의 인문사회 계열 학과 수가 크게 줄고 공학 계열 학과가 늘어나며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문 계열에 특화된 우리학교가 어문학과 외의 다양한 방면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에 논의되던 폐과존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학과 신설을 고려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신설학과 논의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는 지점은 크게 △비용△타당성△구체성 측면이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만

도제와 AI 관련 전공 학과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학 관련 학과는 설비 투자에 비교적 큰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가용에 산이 계획되지 않아 학내 구성원 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 공과대학 내 학과들에 대한 시설보수와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에도 추가로 학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안으로 제시된 신설학과나 이외의 여러 신설학과 후보가 기존의 학과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문화산업융합대학의 경우 지난해 글캠에 신설된 융합인재대학과 교육 구성 및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세부 학과 중 Culture & Technology 학부는 설캠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와 유사한 학과 방향성을 띄고 있다. AI전공의 경우 설캠에 신설될 예정인 AI첨단학과와 중복되는 학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현재 양캠프에서 수강할 수 있는 AI융합전공과 강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신설된 학과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유사학과라는 이유로 기존에 폐과된 학과와 비교했을 때 학과 신설의 타당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중복학과를 없애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중복학과를 만들어내는 결정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과존치 결정에서부터 신설학과 방안까지 이어지는 논의의 구체성에 대한 논란도 예측된다. 두 가지의 문제 모두 단순히 하나의 학과에 관한 문제가 아닌 △교수진△교육과정△정원 등 논의돼야 할 수많은 세부사항이 존재함에도 아직 대다수의 결정이 미지수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관계자는 “신설학과 관련 논의는 현재 의견수렴 및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학교가 확정된 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종합적인 고려하에 신설학과 관련 논의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4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한 뒤 이원화 캠퍼스 체제로 전환했다. 설캠과 글캠을 각각 어학과 지역학·통번역학 위주로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어문 계열 학과의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우리학교의 폐과존치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폐과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다. 폐과존치의 또 다른 연장선으로 떠오른 신설학과 논의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나 논의의 장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가 우리학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학교와 함께 ‘도약’ 할 서울캠퍼스 제57대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가 시행됐다. 선거 결과 최종 투표율 32.41%를 기록하며 설캠 제57대 총학으로 총학생회장단 후보였던 ‘도약이’ 당선됐다. 다

음 해 우리학교의 도약과 발전을 향한 걸음을 내딛을 배귀주(상경·국통 20) 총학생회장(이하 배 회장)과 황유리(사범·영교 20) 부총학생회장(이하 황 부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Q1. 제57대 설캠 총학 선거에 출마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배 회장: 이번 해는 학생 주체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당선된 신입 총장의 임기 첫해였던 만큼 학교 본부와 학생 간의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져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죠. 이에 학생이 마땅히 영위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총학을 만들 고자 출마했습니다.

황 부회장: 지금까지 우리학교에서는 △성적평가방식△수강신청 제도△ 학사제도와 같이 교육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총학으로서 학생들이 학내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어 부학생회장에 출마했습니다.

Q2. 임기 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총학으로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배 회장: 학생에게 다가가는 총학을 넘어서 학생이 다가올 수 있는 총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학교 내 문제점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나갈 생각이에요. 또한 총학으로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을 넘어 삶의 전반에서 총학과 학생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황 부회장: 총학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취·창업△학내 시설 등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접하는 모든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실현하고 이를 결과로 보여줘야만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3. 이번 해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본부에 전달되기는 했으나 실제 이행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적었다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요구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 생각해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 회장: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과 함께 학교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본부에 요구할 때 우려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에요. 또한 학교 부처 관계자와의 면담 빈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최소 반기별로 면담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학우들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Q4. 청원안전상정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소개△시행 계획△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

황 부회장: 청원안전상정제는 학생들이 총학 홈페이지의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을 업로드하면 게시물 중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달 총학 홈페이지 내 열린소통 게시판에 Q&A게시판과 청원게시판으로 개편할 예정이에요. 이후 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일정 기간동안 홍보한 뒤 청원안전상정제를 다음 해 상반기 내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원안전상정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안전을 상정하고 의제를 공

문화함으로써 총학이 학생의 요구에 기반해 행동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예정이에요.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총학에 대한 학우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죠.

Q5. 전임 총학의 활동에서 보완하거나 이어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배 회장: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구안에 반영했던 이전 총학의 활동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의견을 수치화해 더욱 명확한 근거를 통해 학교 본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총학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임 총학이 학생들에게 사업을 전달했던 방식과 행동에 대해 설명했던 방식은 개선하고자 해요. 특정 의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학우들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황 부회장: 전임 총학의 임기 당시 기충단위와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학생이 3주체로서 존중받는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충단위와의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도약은 기충단위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 배귀주 총학생회장과 황유리 부총학생회장

Q6. 대학교의 수익사업 운영은 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학교 수익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총학으로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배 회장: 우리학교는 △교육사업△기숙사△플렉스(FLEX) 시험 응시료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그 외의 외국어종합시험 응시료와 임대매장 대여료 등의 주요 수익사업들도 소 규모로 이뤄져 예산을 확충하기 쉽지 않아요. 이에 최소 반기별로 학교의 수익사업을 관장하는 사업지원처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본부와 교내 수익사업의 이행 여부 및 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할 생각이예요.

Q7.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황 부회장: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돼야 학생들이 자신이 지불한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추후 어떻게 쓰일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위촉 시 학생위원과의 협의 과정을 필수 규정으로 신설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등록금이 사용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Q8. 학우들의 진로 및 취·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HUFSAbility’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앱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배 회장: ‘HUFSAbility’ 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학교는 양질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다수 제공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받고 있어요. 이에 앱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진로 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제로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Q9. 제55대 설캠 총학선거는 46.27%의 최종투표율을 기록했고 제56대 설캠 총학선거는 35.94%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자치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 회장: 학생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총학이라는 인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이 진행하는 사업을 포함해 모든 행동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권리 실현이라는 목적에 기반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요.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실현해야만 총학의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학생자치의 중요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 부회장: 총학에 대한 관심도 하락은 총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총학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죠. 학생들이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총학이 학생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10.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 회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총학이 되겠습니다. 총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믿음만으로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우리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총학이 되어 보다 나은 학생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황 부회장: 지금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행동해 이끌어낸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직접 지켜보기에 학생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 해가 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우리학교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웠던 기억으로 가득 찬 독일에서의 시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우리학교 741 파견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마르부르크 필리프 대학교 (Philipp-Universität Marburg) (이하 필리프 대학교)에서 파견학생 생활을 했다. 난 파견학생 선발에 지원하기 전 까지 독일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선발 지원 당시 6학기에 재학 중이였기에 졸업 전 파견학생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다. 처음 필리프 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어학성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별생각 없이 도착한 이 대학교에서는 △교원학생△국제학생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인 ESN(Erasmus Student Network) 행사△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인 '프리무버(Freemover)' 등 교류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독일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큰 뜻 없이 지원해 도착하게 된 독일에서의 생활이 불투명했던 내 졸업 후의 진로를 한층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다.

평일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생활과 비슷하게 주로 △도서관△집△카페△학교△헬스장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수업은 한 학기 동안 3개의 전공 수업과 2개의 어학당 수업을 수강했다. 전공 과목의 경우 개념 및 이



론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문제풀이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돼 사실상 수업이 한 주에 두 번인 셈이었다. 필리프 대학교 파견학생에게 추천하는 수업은 세미나(Seminar) 강의다. 이 수업을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학생들을 보며 내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주말에는 인근 도시나 국가로 여행을 다녔다.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와 프랑스 파리(Paris) 등을 여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독일의 지리적 장점 덕분이었다. 그 덕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주말을 이용해 이웃나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기차를 타고 지

나기며 본 스위스의 풍경△베니스(Venice) 골목을 걸어 다닌 기억△베를린(Berlin)에서 보낸 주말△아칸 기차를 타고 갔던 뮌헨(München)△처음 본 파리의 에펠탑 등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학기가 시작되면 평일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업과 과제가 많아 바쁘다. 그렇기에 장기여행을 계획한다면 개강 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난 지난 2월 말 독일에 입국했지만 막상 도착한 뒤 여러 서류를 처리하고 환경에 적응하느라 개강 전까지 여행을 다니지 못해 아쉬웠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학 생활 전 독일에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익힌 후 유학을 통해 현지사람들과 해당 언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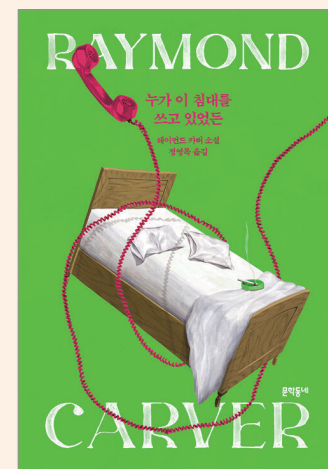
난 독일에 일을 해볼 생각이다. 주위 사람에게 이런 나의 계획을 말할 때마다 다들 어떤 점이 좋아서 독일을 선택했냐고 묻는다. 그 질문에 난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문화△독일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채식이 주가 되는 음식 문화 등을 이유로 답한다. 졸업 후 독일에 일하는 내 모습이 기대되기에 지금도 독일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다른 학우들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조신영(국제 · 18)

미국

<누가 이 침대를 쓰고 있었든>

- 간결함이 지닌 힘 -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이하 카버)는 미국의 단편 소설가로 1938년 미국 오리건 주(Oregon)에서 제재소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0세기 후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미국 단편 소설계를 이끈 작가로 유명하다. 카버가 장편 소설을 집필하지 않고 단편 소설만을 고집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가난했던 생활 환경이 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품 활동에 매달

려야 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으로 인한 작품당 2년에서 3년을 투자해야 하는 장편소설을 쓰는 것으로는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카버는 "쓰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수레 한 대만큼이나 쌓여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쓰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버는 오롯이 생계유지를 위해 글을 썼으며 그러한 불안했던 시절은 그가 글을 쓰는 영감의 원초이자 기반이 됐다. 카버의 대표 작품인 '대성당'은 1983년 출간 후 8주 만에 3쇄를 출판하며 17,000부가 판매됐고 현재까지 열두 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삶의 근본적인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의 단편 소설들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번 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카버의 단편집 '누가 이 침대를 쓰고 있었든'에는 1983년 출간된 '정열에 수록된 단편 4편과 그가 사망한 해인 1988년 출간된 '내가 전화를 거는 곳에 수록된 단편 7편이 수록돼 있다. 총 11개의 단편 중 표제작인 '누가 이 침대를 쓰고 있었든'은 주인공 '버드'와 그의 아내의 집에 걸려 온 전화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의문의 전화로 인해 새벽에 잠이 깬 부부는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마치 꿈을 꾸듯 무작위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걸려 오는 전화에 버드는 수신자에게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아내는 전화를 뚝아버리며 단호하게 대응한다. 언뜻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카버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 인간의 두려움과 함께 순간의 불안과 불행에도 계속되는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러한 불안과 불행은 그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핵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카버의 글을 읽을 때면 어두운 동굴을 지나는 기분이 든다. 독자에게 특정한 상황을 던져준 뒤 감정적인 문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작가. 그래서인지 그의 글은 보다 더 조용한 감동을 줘어 준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간결한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정을 줄 수 있는지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한국외대 서울 학생상담센터에서
**또래상담이 필요한
외대인을 찾습니다!**



또래상담자는 총 1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한 한국외대 학생들로,
본 프로그램은 상담기술과 상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학우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대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UDENT COUNSELING CENTER

신청대상



또래상담이 필요한 한국외대 학우라면 누구나

진행방식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담자와
1:1 매칭, 개별 연락 후 상담 진행

신청기간



2022학년도 2학기 공 상시모집

신청방법



상단 QR코드 인식/하기 링크 접속 후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6KS9Eu7tafMG8GSJ8>

문의



02-2173-2562, sccs@hufs.ac.kr
(국제학사 345호 학생상담센터)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싼 인권 문제

지난달 21일 개최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하 카타르 월드컵)’은 1930년 이래 처음으로 중동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인 만큼 큰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개막 전부터 노동자와 성 소수자의 인권 침해 등 여러 인권 문제가 발생해 논

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러한 문제들은 월드컵 개막 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대회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 월드컵 이면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자 인권 침해

지난 2010년에 2022년 월드컵 개최지가 확정된 이후 카타르는 12년간 이번 월드컵을 준비했다. 카타르는 인구가 300만 명도 되지 않는 국가 이기에 월드컵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많은 이주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 투입했다. 180만 명에 달하는 인부들은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케냐△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월드컵이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를 중심으로 인근 5개 도시의 8개 경기장에서 치러지기로 예정돼 있었기에 경기장과 훈련장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숙박시설△통신시설 등 지원 기반 시설 구축까지 동시에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4년에 카타르 월드컵 공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40명이라고 발표했다. 40명 중 37명이 심장마비 등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했고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가 3명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하산 알 타와디(Hasan Al Tawadi)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카타르 월드컵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카타르에서 50명이 업무 도중 사망했고 50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만 7,600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이주 노동자 6,500명 이상이 카타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비즈니스와 인권자원센터(BHRR)’가 2016년 1월부터 이번 해 11월까지 카타르 월드컵 준비 기간 동안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및 학대가 최소 63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각 기관마다 내용은 통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40명뿐이라는 FIFA의 발표 내용과는 모두 대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열악한 작업 환경이 꼽힌다. 최대 50도까지 치솟는 중동의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과 잠자리를 제공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장 건설 기간 당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dailymail)은 “근로자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수면 시간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카타르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에게 하루 8,3파운드(약 1만 3,514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지급했다. 또한 ‘카팔라 제도’와 같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노동자가 이직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이주 노동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의 노동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운동 단체 ‘이주자 권리 프로젝트’는 카팔라 제도가 명목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인 영향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이슬람 율법 적용

세계계적인 축제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가 성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카타르는 헌법상 이슬람교가 국교로 명시돼 있는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동성애는 불법이며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

기도 한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 유럽의 △네덜란드△덴마크△독일△벨기에△스위스△웨일스△잉글랜드 총 7개 국가 대표팀 주장들은 성 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대회를 앞두고 각종 인권 논란을 부른 카타르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한다는 뜻으로 네덜란드가 시작한 ‘원 러브(one love)’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FIFA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무지개 완장을 착용할 경우 옐로카드를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유럽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무지개 완장을 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 7개국 축구대표팀은 “복장과 장비 규정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을 낼 준비는 돼 있었지만 선수들이 옐로카드를 받거나 경기장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는 없었다”며 “FIFA의 전례 없는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선수들의 무지개 완장 착용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관중들 또한 무지개 의류 착용이 금지됐다. 경기장에서 미국과 웨일스의 경기를 관람한 전 축구선수이자 FIFA 평의회 후보였던 로라 맥칼리스터(Laura McAllister)는 보안요원 지시에 따라 무지개색 모자를 벗어야 했고 무지개색 티셔츠를 입은 미국 기자가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출처: 세계일보

외국인에게도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다는 점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또 다른 논란 지점이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이번 월드컵 기간에만 경기 시작 전후로 경기장 인근 지정 구역에서 맥주를 팔아 조건부 음주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가 계속해서 맥주 판매 반대에 대한 압력을 넣었고 결국 FIFA는 개막 이틀 전인 지난달 18일에 맥주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음주 문제를 제외하고도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옷으로 가려야 한다는 복장 규정 또한 문제가 됐다. 카타르가 외국인 복장 규정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FIFA는 카타르 월드컵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복장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카타르 정부 또한 월드컵 개막식 전 공식 홈페이지에 공공장소에서는 무릎과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복장을 장려한다고 알렸다. 여러 논란이 일자 잔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FIFA 회장은 월드컵 본선 출전국들에 “지금 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축구가 이념적, 정치적 싸움에 끌려가게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에 유럽 10개국 축구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은 보편적이고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인권이 보장되는 월드컵을 위해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세계 모든 인구의 화합을 도모하는 월드컵 본연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다수의 나라에서는 보이콧(boycott)을 진행하거나 항의 의사를 표했다.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월드컵 거리 응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출전국의 항의 표시도 잇따랐다. 스텐마크△미국△잉글랜드 대표팀은 특별한 유니폼 및 완장 착용 등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나타냈다. 덴마크 대표팀은 평소 입는 붉은색과 흰색 유니폼 이외에 사망한 이주 노동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검은색 유니폼을 제작했으며 미국 대표팀은 성 소수자의 포용을 촉구하자는 의미로 대표팀 유니폼의 문장 한 줄을 무지개색으로 교체했다.

지난달 24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카타르 월드컵 준비 중 인권 침해를 겪은 노동자와 사망한 이주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FIFA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U 의회는 카타르 당국을 향해서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의 부상과 사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카타르의 성 소수자 커뮤니티 탄압 관련 보도 내용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판이 계속돼서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FIFA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부터 무지개 모자와 깃발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무지개 완장을 차고 출전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

카타르가 수많은 논란에도 침묵하며 월드컵을 강행한 것이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포츠 워싱이란 국가나 단체가 스포츠맨십이 주는 감동을 이용해 인권 탄압 등 본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탁하려는 행동을 뜻한다. 노엘 무니(Noel Mooney) 웨일스 축구협회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카타르 월드컵은 국가의 인권 침해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는 스포츠 워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

다. 이번 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하 베이징 올림픽)도 스포츠 워싱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 2008년 베이징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중국 정부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해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다시 한번 개최됐지만 중국은 △사형 집행△소수민족 강제 수용소 운영 논란△억압된 표현의 자유 등의 인권 문제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은 중국의 인권 실태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은 스포츠 워싱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어려웠다.

전 세계의 관중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월드컵 본연의 취지에 맞춰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길 원한다.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경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되돌아보고 타협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탈북민 지원 정책, 더욱 개선된 상생을 모색할 때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우리나라 입국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탈북민과 화합해 나가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국내 탈북민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탈북민 지원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

지난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이 백골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겨울 옷차림을 한 모습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통해 그녀가 오랜 시간 방치됐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생전 탈북민 상담사로도 활동하며 지난 2010년 성공적인 국내 정착 사례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지난달 7일에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던 20대 탈북민 남성이 자살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그의 가족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였으며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공장 및 식당에서 일하거나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총 3만 3,857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생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초 생활 생계비를 지원받은 국내 탈북민의 비율은 32.4%다. 같은 해 일반 국민의 인구 대비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탈북민의 고용률은 66.2%로 일반 국민의 62.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탈북민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단순 노동 및 서비스직으로 일반 국민이 분포한 상위 직업이 전문가·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인 것과 상반된다. 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70만 원을 상회하는 데 반해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0만 원을 웃돌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해 일반 국민의 평균 실업률은 2.45%인 것과 달리 국내 탈북민의 평균 실업률은 4.3%로 나타나 탈북민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인식은 국내 탈북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0년 탈북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으나 지난해 응답 비율은 25.1%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2월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57.9%)이 일반 국민(50.5%)보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말투△생활방식△태도 등 북한의 문화적 소통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과 세금 부담 증가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꼽혔다. 탈북민의 우울감도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다. 지난해 탈북민 중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로 일반 국민의 5.2%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다. 그 이유론 △경제적 어려움(26.8%)△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25.8%)△외로움·고독(16.4%)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탈북민 지원 현황

지난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을 보호하고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교육△주거△취업 등을 고루 뒷받침하며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는 등 법률에 의거해 탈북민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통일부와 같은 맥락으로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부가 지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는 지역별로 탈북민의 정착 과정을 지원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로 분리된 행정 구조는 탈북민 지원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금숙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는 “탈북민 정착 지원이 통합돼 있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장에서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센터는 전국에 25개뿐으로 탈북민 모두를 밀착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탈북민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천의 경우 하나센터 지역 담당자 한 명당 관리하는 탈북민이 363명으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제주

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교육△주거△취업 등을 고루 뒷받침하며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는 등 법률에 의거해 탈북민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통일부와 같은 맥락으로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부가 지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는 지역별로 탈북민의 정착 과정을 지원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로 분리된 행정 구조는 탈북민 지원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금숙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는 “탈북민 정착 지원이 통합돼 있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장에서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센터는 전국에 25개뿐으로 탈북민 모두를 밀착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탈북민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천의 경우 하나센터 지역 담당자 한 명당 관리하는 탈북민이 363명으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제주



▲국내 탈북민 지원을 관할하는 통일부

는 151명으로 가장 적다. 더불어 하나센터의 탈북민 출신 심리상담사와 취업상담사는 각각 9명과 5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대전시에 소속된 심리상담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센터는 탈북민에게 △생활정보 제공△심리·진로상담△취업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관리자 수의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며 지역별 지원 불균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탈북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같이 지원 주체가 분할돼 있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잇따라 탈북민의 비극을 계기로 현재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탈북민의 지원 주체가 분산돼 있는 점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7개의 지자체도 탈북민을 위한 정착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가 3만 명이 넘는 데 반해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는 30명에 불과하므로 공무원 한 명당 약 천 명이 넘는 탈북민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해 지자체가 편성한 탈북민 지원 예산은 3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탈북민 한 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평균 10만 원 수준에 그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에서 탈북민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탈북민 지원 체계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통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다음 해 하나재단에서 운영 중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 이력시스템을 통일부 안전지원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가 탈북민 보호 및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와 관련해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은 “통일부는 대북 관련 통일 업무에 중점을 둔 부서임에도 탈북민 관리까지 도맡고 있다”며 “탈북민 관리 주체를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맡는 게 더 나은 것이다”고 전했다.

하나센터의 상담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심리상담사를 탈북민 혹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할 경우 탈북민의 심리 및 정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홍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탈북민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는 탈북민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탈북민을 심리상담사로 양성한다면 다른 탈북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탈북민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탈북민을 향한 인식의 전환은 △시민사회△언론△탈북민△통일부 및 관련 정부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다.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이웃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며 “성공적인 탈북민 정착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등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 칭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미래의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탈북민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탈북민을 위해 △법률 교육△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지원△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계 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웃인 탈북민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대상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해

지난 1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안을 보고받았으며 특별사면 시점과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됐다고 전해졌다.

사회 강원도 양양 헬리콥터 사고, 탑승자 5명 전원 사망해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S-58T 기종 중형 헬리콥터가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에 지난 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을 김포에 있는 조사실로 옮긴 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사조위는 △기체 결함△임차 계약△정비 관리△항공기 운항 관리와 관련된 내용 등 헬기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서울특별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해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 조항으로 담겨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국제 하킴 제프리스 미국 하원 의원, 미국 최초 흑인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돼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하킴 제프리스(이하 제프리스) 의원을 차기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1970년생으로 미국 의회 역사상 첫 흑인 수장이 돼 관심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스마트 도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조성 중인 '네움시티(Neom City)'는 사업비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건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도시 조성 사업이다. 사우디는 네움시티 내에 지어질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도시 '더 라인(The Line)' △바다에 세워질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Oxagon)' △사우디에서 가장 높은 산맥에 만들어질 미래 휴양 도시 '트로제나(TROJENA)' 프로젝트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사우디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 도시를 조

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 또한 지난 2019년부터 모든 과정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민재 인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 속 스마트 도시의 △개념△우려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김민재 인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Q1. 2020년 세계 스마트 도시 시장은 6,483억 6,000만 달러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으며 연평균 25.2%씩 성장해 2030년까지 6조 6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마트 도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로 신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는 도시입니다. 일상생활 속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죠.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용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스마트 도시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도시 문제로 꼽히는 △교통 혼잡△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에너지 소비 급증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죠. 단순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구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만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된 공간 구축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Q2. 기존의 도시 건설과 스마트 도시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생활 속 데이터 확보입니다. 스마트 도시의 핵심적인 기술로는 정보통신기술(ICT)인 사물인터넷(IoT)과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도시 속에서 사물인터넷 센서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유통△분석한 후 도시 생활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도시 건설과는 달리 스마트 도시가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게 돼요. 해당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확보한 뒤 도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전 세계로 공유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죠.

데이터 확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전체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인 '도시 데이터 센서(S-DoT)'가 있어요. 이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습도△온도 등 총 17개의 도시 데이터가 수집 및 분석돼 서울시 도시 정책에 반영됩니다.

Q3. 스마트 도시에 적용되는 환경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도시에서 활용되는 ESG* 사업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데이터는 생활 속 모든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지능

형 에너지 플랫폼 향후 기술을 예측 및 관리하고 기술체계를 강화하여 스마트 도시 내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어요. 즉 스마트 도시 속 생산되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추출한 후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최근에는 도시의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전 세계 공통 기본 정책인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Q3-1. 우리나라에서 기획 중인 에너지와 환경 관련 스마트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SG와 관련한 기업과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ESG 관련 국내 스마트 도시로는 이번 해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별 탄소 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죠. 선정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녹지과 같은 흡수원 확대△순환 경제 촉진△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요. 특히 선정된 두 지역 △기업△정부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Q4. 스마트 도시의 발전 단계 중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의 스마트 도시 중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 초기 기획의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된 상태예요. 지난 5월 영국의 '지엔사(Z/YEN)'가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SCI)'에서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2위에 이름을 올렸고 서울시는 24위를 기록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도시의 시범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EDC)'를 선도적인 사업모델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각 지자체와 시범 도시는 다양한 도시 환경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스마트 도시에 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Q5.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 계획인 네움시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움시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

명해주세요.

네움시티의 문제점으로는 실제 거주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크게 꼽힙니다. 실제로 현재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저층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 위주의 세대가 구성되고 고층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계획될 수밖에 없기에 기차 칸에 따라 계층을 서열화하는 영화 '설국열차'를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더불어 네움시티는 도시 내부에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 연중 온화한 기후를 조성하고 인공강우 시스템을 통해 사막에 비를 내립니다. 그러나 네움시티와 같이 자연 생태계를 거스르는 스마트 도시의 보존 기술은 반드시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스마트 도시 기술은 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의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사업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적극적인 기술 보완과 지원이 필요해요.

Q6. 향후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난 9월 언론사에 의해 발표된 '얼라이드마켓리서치(Research And 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7년 세계 스마트 도시 시장 규모는 2조 8,000억 달러(약 3,920조 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과 독일 등 활발하게 스마트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주요 국가들의 시장 규모도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부가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ESG: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요소.



‘나’ 스타일

외대학보에는 ‘외대학보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다. 기사를 쓸 때 글을 외대학보에 맞는 스타일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 외대학보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나는 이 말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다. 심표를 지양하고, 단어가 세 개 이상 나열될 때는 △로 묶고, ‘-라는’을 무조건 ‘-란’과 같은 축약형으로 줄이는 등...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아주 닮았고, 그렇기에 각자의 삶이 다르듯 각자의 글쓰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종종 외대학보의 기사가 단어 사용부터 글의 흐름까지 너무 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외대학보에서 기자로 보낸 1년은 그런 문제의식과 내 글쓰기가 서로 충돌과 화해를 거듭하며 겸손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장을 쓰는 것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를 쓰면서 사소한 보이는 단어와 어투 하나가 글의 의미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이로 인해 그 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됐다. 그렇게 읽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자신만의 확실한 글쓰기 스타일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인지를 깨닫는 1년을 보냈다.

이번 학기에 편집장으로 지내면서 내가 늘 고민한 문제 중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단어 사용부터 내용 구성까지 기사로서의 본질을 살리되,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할 수 있을까’였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이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내가 정말 잘 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의 부족한 안목으로 인해 기자들 각자의 색깔을 멋대로 지워버리고 그들의 글을 상투적인 형식 속에 가둬버린 적이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람과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거리를 제공해주고, 내용이 중립적이면서도 각자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사로 열두 면을 채우는 것. 내가 확실히 이룬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이 목표를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104기 국부장단과 105기, 106기 기자들이 꼭 이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빛을 쬔다. 언제나 학생 기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신 정은귀 주간 교수님, 학보가 단순히 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안홍섭 조판소 사장님, 기사 쓰기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준 101기와 102기 선배들,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기사 편집 과정을 불멘소리 없이 도와준 채은이와 하형이, 비록 1년 6개월을 함께 채우지는 못했지만 타국에서 늘 외대학보를 응원하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준 승연이, 부족한 편집장을 믿고 따라준 104기와 105기까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지양해야 한다고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말해왔는데, 정작 이 좁은 지면 안에 나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방법을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여전히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아주 닮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앞으로 외대학보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나의 글과 삶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나만의 스타일을 정립해나갈 생각이다. 나뿐만 아니라 외대학보의 모두가 각자 치열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민하다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삶의 모습에 놀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장래산 편집장

1074호 학보를 읽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담대한 쇄신을 바라며

송성윤(서양어 · 독일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2월이 도래하며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도 끝났으니 어서 교정에서 23학번 새나기를 반갑게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1074호 외대학보에서는 △현행 계절학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에 관한 고찰 △우리학교 졸업 요건에 관한 분석△불매운동의 양면성과 그에 관한 제언 등이 다뤄졌다.

3면의 부족한 계절학기 개설 현황을 담은 기사에서는 계절학기 교과목이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학점 및 졸업과 밀접하게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준인원을 충족하면 강의가 필수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4면에서는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왔던 예산 부족 문제가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예산은 대학교의 자립성과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교내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장학금 조달 등 추가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예산 부족의 원인은 △높은 등록금 의존도 △동결된 등록금 액수 △부진한 기부금 모금 △저조한 수익 사업 수입 등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이진보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익 창출 기회를 증대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법인에 의한 전입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학교도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면에서는 현행 졸업요건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과 그 방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이뤄졌다. 학과에 따라 졸업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복수의 요건이 중복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는 학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작됐지만 일관성이 없어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과중한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플렉스(FLEX) 시험을 보다 융통성이 있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공하는 등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해 학생들의 부담과 고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면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던 종합 식품 기업 ‘SPC’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불매운동의 성질과 그 면면이 다뤄졌다. 불매운동은 최근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해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관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로 무고한 가맹점주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본사에 책임의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책임의 법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또한 기업 대표 및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불매운동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론적 접근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 △자각 △담론의 제기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이뤄질 수 없다. 외대학보가 학내의 여러 문제에 관해 학우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유의미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변화의 중요한 매개이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1074호 학보를 읽고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김수연(국제지역 · 중앙아시아 1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외대학보 1074호에서는 청년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교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면의 계절학기 개설 강의 수 부족 문제는 수강 인원이 적은 학과에 더욱 외로운 사안이다. 강의 수 부족의 대안으로 방학 중 집중이수과정과 방학단기연수가 존재하지만 방학단기연수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 학생들이 수강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계절학기 개설 강의가 없는 학과에서 단과대학 통합 지역학 강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4면에서는 우리학교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우리학교의 재정난이 심각한 이유는 △가부금 △수익사업 운영 △보조금 지원 등의 부문에서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총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꾸준히 학교 측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본부는 하루 빨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면에서는 졸업요건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학교는 수강신청의 어려움과 강의시수 대비 인정되는 학점이 낮아 졸업 필수학점을 채우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각 학과마다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 인증 대체 과제 등 요건을 다르게 요구하고 있지만 2개 이상 중복되는 졸업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등 학생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과도한 학과도 있다. 졸업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7면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토론회의 효과에는 의구심이 든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위해선 정책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대다수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우가 체감 경제고통지수 1위를 차지한 청년층에 속해있는 만큼 사회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

8면에서는 국내외 불매운동의 변천사와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중 불매운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가맹점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본사의 잘못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벌을 함께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가맹점주의 표현을 통해 그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매운동의 역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한편 종합 식품기업 ‘SPC’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도 했다. 형식적인 사과문만 발표했을 뿐 SPC 기업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바로 공장 가동을 시작해 여전히 사고 이전과 다름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9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기사를 읽으며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기업을 겨냥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5인 미만 업장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강화해 안전 관련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보이지 않는 도시’를 읽고]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문화

현재 세계의 도시화율은 50%에 달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인구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책 ‘보이지 않는 도시’의 저자인 ‘임우진’ 건축가는 우리나라에서 30여 년, 프랑스 파리(Paris)에서 20여 년을 생활하며 두 문화권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며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도시의 숨겨진 이면을 보여준다.

다양한 민족이 섞여 다문화 환경을 형성해온 서구의 도시 건축과 우리나라의 도시 건축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서양의 경우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반면 단일 언어와 단일 민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공동체주의 문화를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구의 도시에서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자신과 다른 특성의 인간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 서구의 문화적 특징을 만들었다. 이는 도시 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역 내부 벤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여러 명이 자율적으로 앉을 수 있는 긴 평상 형태이지만 영국은 오직 정해진 수의 사람만 앉을 수 있도록 팔걸이로 자리를 구분한다. 길거리 무단

주차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이를 강하게 규제하기보다는 주차 단속원이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를 감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반면 유럽의 대도시는 보도의 턱을 높여 불법 주차 차가 불가능한 구조를 적용해 시도 자체를 막는 강한 규제를 시행한다. 이러한 도시 문화의 차이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기대의 여부로부터 비롯된다.

문화는 비단 도시 건축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공동체주의 문화는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권에 따라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속한 국가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my’ country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칭할 때 ‘나의’ 나라라고 칭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으며 외국인인 ‘our’ country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이처럼 문화는 다양한 방법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해보면 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그 섬’을 보고]

우리의 섬을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 ‘그 섬’은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한 원인이 오로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시작한다. 10만 년 주기로 반복되는 간빙기와 빙하기 사이의 온도 차가 4도가량인 걸 고려하면 이는 매우 큰 수치다. 영화는 각각 산과 바다로 주제를 나눠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실태를 보여준다.

영화 전반부에서는 숲과 구상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라산에 주로 분포된 구상나무는 멸종 위기종임에도 기후 변화로 인해 30%가 넘는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다. 영화는 이러한 참사 현상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영화 속 기후 변화로 인해 파괴된 생물체의 모습과 황폐해진 숲의 전경은 자연 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후반부에서는 바다와 툇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조류의 급격한 감소는 암반에 해조류가 사라지고 회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갯녹음 현상을 유발했다. 또한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해 관광객 진입 통제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용머리 해안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 변화가 제주도의 환경에 이미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화에 출연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에 맞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다”며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학계에서는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이미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그린란드 및 서남극 빙하 해빙 △대서양 해류 순환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엘니뇨(El Niño)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연 재해 발생의 주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

우리는 현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후 변화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변화를 단순히 국가나 지역 차원의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면 앞으로 계속될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에 범지구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티핑포인트를 넘어서기까지 자연과의 관계를 망가트린 것은 인간이기에 이를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 또한 인간의 의무이다. 선택과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인간의 몫이니 이제부터라도 자연과의 관계를 되돌려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구 안의 대륙이라는 거대한 섬에 살고 있다. 우리의 섬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다.

*티핑포인트 :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국 · 부장 고정칼럼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이번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1948년 프랑스 파리(Paris)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이 국제연합(UN) 헌장으로 채택된 지 74번째 해를 맞은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외받는 이들이 △국적△인종△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적 소수자'란 단어는 절대적인 수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정당한 근거 없이 주류 영역에서 빗겨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왜곡된 시선 아래 소외당하고 있다. 이는 학보사 안에서도 늘 중요한 논제로 다뤄졌다. 이번 외대학보 1075호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기사를 작성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하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적 축체인 월드컵의 이면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꼽히는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그들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용될 거대한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오랜 기간 뜨거운 햇빛 아래서 휴식 시간도 없이 노동해야 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날선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과와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카타르 정부의 태세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세계인의 화합을 도모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를 추구하는 월드컵의 본래 목적이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날선 비난과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가해지는 혐오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그늘 안으로 밀어 넣는 수단이자 위협적인 무기가 됐다. 그렇기에 소외받는 이들을 사회의 기준과 다른 자신만의 특징을 감추며 살아간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가 우리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속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학보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기사를 작성한다.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발 벗고 취재하며 글을 쓰는 학보 기자들의 바람이 독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김하형 부장 03hahyung@hufs.ac.kr



그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한국계 미국인 작가 민진 리(Min Jin Lee)의 영어 소설 『파친코』 첫 문장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 이민자 가족의 3대에 걸친 서사를 그린 이 소설은 애플에서 드라마로 만들어 미국의 독립영화 시상식인 고담 어워즈에서 작품상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최근에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수상하여 작가가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다. 2009년에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면서 민진 리를 초대했는데 섬의 차 연락을 주고받을 때 작가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를 다룬 소설을 쓰고 있는데, 독자들이 큰 주목을 하지 않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쓰는 일이 무척 고독하고 힘들다고

그 소설이 2017년 출간되어 뉴욕 타임즈, USA 투데이, 영국 BBC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2018년에 연구자 미국 보스턴에 갔을 때, 바닷가의 한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평범한 시민이 이 소설을 반겨 이야기하며 한국 근대사의 아픈 역사에 대해 꼬치꼬치 묻던 기억이 난다. 그때 이 소설이 미국사회에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디아스포라의 삶을 새롭게 비추으로써 한국에 큰 관심이 없던 보통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을 실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첫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역사 안에서 개인은 패배할 수 있다. 역사 안에서 개인은 망가질 수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한 개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는, 매일, 다치고, 상처를 입고, 패배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작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역사가 개인에게 작동하는 잔혹극 자체보다는, 역사라는 거대한 개념조차 한 개인이 삶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작가가 여러 강연에서, 나라 잃은 설움 많은 시절을 살아왔지만 당당히 이 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되풀이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국가와 개인, 역사와 개인의 관계는 이처럼 늘 다소 착잡한 긴장 관계 안에서 사유된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의 꿈을 키우지 못하는 나라를 ‘헬(hell)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국민을 잠 못 들게 하는 월드컵에서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이, 다친 몸으로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를 누비던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를 하면서 “이토록 멋진 나라”(this amazing country)를 대표하여 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갑수룩 살기 어려워지는 이 땅에서 다들 한숨을 내신다. 청년 세대에 합당한 미래의 꿈을 설계하지 못하고 약자를 품고 위하는 정책 대신 권력과 돈의 질서 안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 이 나라에서, 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이들을 향해 너무나 쉽게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 거친 땅은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을 이겨낸 역사가 있다. 그 역사에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개인들이 있다. 그걸 아는 청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힘이고 희망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4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대학에 대해,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역할과 그 공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사회에서 유능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세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공동선의 가치, 미래 세대와 지금 세대를 잇는 유대, 기후 위기 등 지금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길러주는 일, 국가와 역사, 개인과 공공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일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자 비전이다. 소설가의 한 문장과 다친 몸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한 선수의 신비로운 구절 하나를 나누면서, 이번 학기 마지막 학보를 ‘그림에도 불구하고’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낫게 내일을 일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 미국의 저널리스트 스트로홀린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는 죽임(killing)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는 말(words)로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지면에서 우리가 나눈 말이 죽임보다 상생의 내일을 향하는 이야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이 지면을 빌어, 공공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내주고 헌신한 우리 기자들에게 경이(驚異)를 표한다.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김상연: 한결같은 마음으로 외대학보에 임하겠습니다.

김예주: 함께했던 모두의 앞날이 행복하길.

김하형: 잘 즐기다 갑니다.

나리나: 이번 해 나의 전부, 외대학보.

명나디: 나를 성장시키는 한 줄,외대학보

양진하: 우리가 쏟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길.

양채은: 오래도록 외대학보의 여름 햇살 같은 기자로 남고 싶습니다.

장래산: 열심히 읽고 쓰고 살겠습니다.

정원준: 항상 낭만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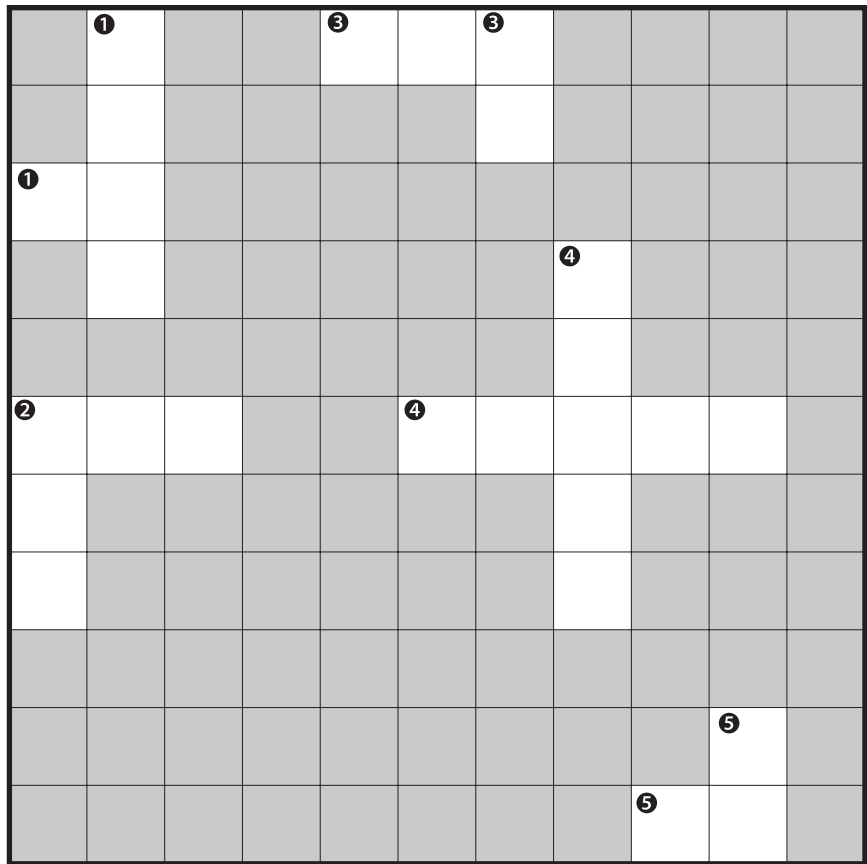
조수빈: 내 인생의 또 다른 한 페이지, 외대학보.

지명원: 이번 학기도 외대학보에서 보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한비: 소중한 추억을 잔뜩 머금고 갑니다.



십자말풀이



- 가로**
- 현재 학과 동아리와 학회의 경우 중감위 00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학과 학생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긴다. (3면 참조)
 - 지난 2010년에 2022년 월드컵 000가 확정된 이후 카타르는 12년간 이번 월드컵을 준비했다. (7면 참조)
 - 000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000와 같은 맥락으로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8면 참조)
 - 000 00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로 신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도시다. (9면 참조)
 - 이번 학술제는 홍석우 우리학교 우크라이나어과 학과장(이하 홍학과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00하고자 진행했다. (2면 참조)
- 세로**
- 학생 사회는 총장과 의 대학을 비롯한 학교 측과의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양 캠퍼스의 0000을 전달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4면 참조)
 - 학교와 학생 간의 평행한 대립 끝에 최종 학칙 000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 및 세부 논의들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4면 참조)
 -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카타르에서 50명이 업무 도중 사망했고 50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만 7,600명이 경미한 00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7면 참조)
 - 스마트 도시의 핵심적인 기술로는 정보통신기술(CT)인 사물인터넷(IoT)과 00000가 있다. (9면 참조)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도약’ 은 00안전장정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5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3raesa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장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